

마을의 수호신이 된 설문대할망

치마폭에 흙을 담아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표선리에는 설문대할망과 같은 내력을 갖고 있는 세명주할망이란 신을 모신다. 창조 의 신에서 마을의 수호신으로 변신한 이야기를 만나보자.



표선중앙로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307-13 ~ 표선면 표선리 880-2(약 1.2km)

표선당포로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4-14 ~ 표선면 표선리 45-5(약 0.3km)

표선백사로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068-7 ~ 표선면 표선리 422-3(약 1.8km)

민속해안로 |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282-4 ~ 표선면 표선리 880(약 6.5km)

표선관정로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052-2 ~ 표선면 표선리 972-2(약 1.4km)

표선중앙로 / 표선당포로 | 세명주할망

표선중앙로는 표선리의 중심 도로이다. 일주동로에서 시작해 바닷가를 향해 이어진다. 이 길은 표선리의 변화가를 지나면서 주요시설들과 만난다. 표선면 행정의 중심인 표선면 사무소, 교육의 중심인 표선중·고등학교, 의료시설인 표선보건소, 어르신들의 쉼터인 표선리 노인복지회관 등을 지나 해안가로 이어진다.

표선당포로는 표선리 동남쪽에 있는 포구의 옛지명인 '당포'를 반영한 이름이다. 이 길은 민속해안로에서 바닷가 포구로 이어지는 길이다. 이 포구는 근처에 마을 사람들이 모시는 할망당이 있어 당포 또는 당케라고 불려왔다. 이 당에서는 세명주할망을 모시는데 세명주할망당 본풀이의 내용은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설문대할망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하다. 다리 하나는 성산일출봉에 걸치고 다른 하나는 한라산 꼭대기에 걸쳐서 빨래를 했다는 이야기, 속옷을 만들어주면 제주와 육지를 잇는 다리를 놓아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명주 한 필이 부족해 다리를 놓지 못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두 신을 동일한 신으로 보기도 한다. 표선리에서는 세명주할망을 바람의 신으로 여긴다. 화가 나면 거센 바람을 일으켜 배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제대로 모시면 고기가 잘 잡히도록 도와준다고 믿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 고기잡이를 나가거나 물질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당을 찾아 사고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정성껏 빌었다고 전한다.

표선백사로 | 표선해비치해수욕장



표선해비치해변

당포포구 북쪽은 바다가 섬 안으로 움푹 들어온 지형이다. 그곳에는 넓게 펼쳐진 모래사장이 있다. 표선동서로에서 갈라져 바닷가로 이어지는 **표선백사로**는 바로 이 하얀 모래가 있는 표선해수욕장이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이다. 표선해수욕장은 해가 비치는 곳이라는 뜻으로 표선해비치해변이라 부른다. 제주도 남동쪽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인 해비치해변은 넓은 규모를 자랑한다. 밀물 때는 해안가 가까이 바닷물이 들어오지만 썰물 때는 중간 중간 모래사장이 드러나 제주도에서 가장 넓은 모래사장의 모습으로 변한다. 해비치해변의 많은 모래를 세명주할망이 날라다 쌓은 것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한다. 마을에서는 매년 여름 표선해비치백사축제를 열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민속해안로 | 제주민속촌

표선리의 해안가를 지나는 **민속해안로**는 제주 전통 문화를 한 곳에 모아둔 제주민속촌과 인접한 길이라는 의미이다. 이 길은 세화리에서 시작해 표선해비치 해변까지 해안가를 따라 이어지는 해안도로이다. 성읍민속마을이 예전에 살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곳이라면 제주민속촌은 제주의 다양한 옛 문화를 수집하고 복원해 놓은 곳이다. 1890년대를 기준으로 산촌, 중산간촌, 어촌, 무속신앙촌, 제주관아의 모습을 재현해 놓아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한 곳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다. 제주민속촌에서 민속해안로를 따라 세화리 방향으로 가다보면 예전에 염전을 만들어 소금을 얻었던 곳인 거우개를 비롯해 해산물이 많이 났다는 갯늪, 검은돌들이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검은머채 등의 독특한 해안경관도 함께 할 수 있다.



제주민속촌

표선관정로 | 표선리 연못들

표선관정로는 5개의 우물이 있었던 자리를 반영한 이름이다. 표선리의 일주동로에서 시작해 표선백사로까지 이어진다. 표선리에는 막상올래, 던드리못, 한못, 여의못, 곡지못 등 물과 관련된 지명이 많이 전해온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또는 인공적으로 여러 연못을 찾았던 것을 보면 이 지역도 물 사정이 그리 썩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그 중 표선리에서 가장 컸던 연못은 막상올래라고 알려져 있다. 이 물은 마을 사람들이 오가며 자주 들렀던 연못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목욕을 하고 가거나, 집안의 빨래를 해결하던 빨래터이기도 했다. 또 이 물은 소와 말을 먹이는데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막상올래는 지금은 매립이 되어버렸다. 이 연못 뿐만 아니라 표선리의 많은 연못이 옛 모습을 잃고 매립이 되거나 더 이상 연못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물을 얻을 수 있는 요즘, 한 방울의 물을 얻기 위해 고생해야 했던 선조들의 노력을 다시 되새겨볼 때이다.

